

朝鮮 中宗때의 大學者
花潭 徐敬德

— 主氣論을 理氣說에 남겨

世上은 氣로 가득차



朴 星 來
(韓國의국어大 교수 · 科學史)

이 세상에는 정말로 여러 가지가 있는 듯도 하지만 하늘을 보면 텅 빈 공간이 너무나 커 보인다. 허공... 텅 비어 있는 하늘이 너무도 크고 넓은 것이다. 정말 저 하늘은 텅 비어 아무 것도 없는 것일까? 지금 우리들은 대개 우주는 비어 있는 공간이고 그 사이 사이에 약간의 물질만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1세기 전까지만해도 사람들은 아무도 우주가 텅 빈 공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이스 이래의 서양 사람도, 또는 제자 백가 시대 이후의 동양 사람도 모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은 무엇인가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믿고 있었다. 중국이나 한국의 사상가들은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氣라 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근원적 물질로서의 기는 특히 性理學에서는 그것을 움직이는 법칙성 理와 함께 가장 핵심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自然界的 이치를 氣를 중심으로 설명

자연계의 모든 이치를 기를 중심으로 설명한 우리 나라의 자연철학자로는 조선조 중종 때의 대학자 徐敬德(1489-1546)을 손꼽을 수 있다. 우주가 지금처럼 만물로 채워지기 이전, 즉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도 세상은 비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로 가득 차 있었다고 그는 말한다. 『끝이 없는 것이 太虛이고, 시작이 없는 것이 기이다. 虛란 다름아닌 바로 기인 것이다. 허가 본래 무한하니, 기도 또한 무한하다』고 그의 글 “理氣說”에는 쓰여져 있다.

기의 중요함을 어느 다른 것 보다도 강조한 主氣論은 거의 서경덕에서 시작되었다 해도 좋을 것 같다. 불행히도 우리의 역사에서는 그 이전의 자세한 철학적 성찰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서경덕의 주기론적 태도가 꼭 그의 독자적 발견이라는 뜻은 아니다.

기의 중요함을 강조한 사상가는 특히 중국의 宋대부터 눈에 띄게 나타 났다. 예를 들면 張載(1020-1077)가 주기론의 대표였다고도 할만하다. 그리고 오늘날 宋공에서는 이런 주기론자들

을 일종의 唯物論인 사상가로 보아 이들을 현재 그들이 따르고 있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선구자로 떠 받들고 있다.

만년에 開城교외의 花潭에 살았다하여 화담 선생이라 불리워지는 서경덕은 몇 가지의 재미 있는 일화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다.

그 하나로 그가 아주 어렸을 때의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고려의 서울이었던 개성의 禾井里에서 1489년 2월 17일에 태어난 화담의 아버지는 徐好蕃, 어머니는 한씨였다. 집이 가난하여 어렸을 때부터 나물을 뜯으러 나가곤 했는데 원래 탐구심이 많던 어린 경덕이 한번은 매일 늦게 들어 오면서도 나물은 별로 뜯어 오지 않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그 까닭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물을 뜯다가 저는 새 새끼가 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날에는 땅에서 한 치를 날고, 다음 날에는 두 치, 또 다음 날에는 세 치, 이렇게 점점 높이 날았습니다. 곰곰이 그 이치를 생각해 보았으나 그 까닭은 터득하지 못한 채 나물은 얼마 뜯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화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의 탐구 정신이 그를 주기론적인 사색으로 이끌었던 것 같다. 우주는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기로 가득 차 있고 만물의 원인이 바로 기라고 주장한 서경덕은 온천물이 뜨거운 것도 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원래 불은 뜨겁지만 물은 찬 법이다. 그러나 불에는 찬 불이 없는데, 어찌서 물에는 뜨거운 물이 있는가? 그에 의하면 땅은 陰이 주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땅속 빈곳에는 항상 陽이 관통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때로는 땅속에 기가 뭉쳐지는 수가 있다. 그런데 모든 기는 흐터지면 차가워지

『끝이 없는 것이 太虛이고, 시작이 없는 것이 氣이다. 虛란 다름아닌 氣인 것이다. 虛가 본래 무한하니 氣도 또한 무한하다』고 “理氣說”에 쓰여져 있다.

물이 뜨거운 것은 땅속 빈곳에는 항상 陽이 관통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때로는 땅속에 氣가 뭉쳐지는 수가 있다. 모든 氣는 흩어지면 차가워지지만 모이면 뜨거워진다.

지만 모이면 뜨거워진다. 그것은 마치 풀이 쌓이면 저절로 열이 나서 뜨거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의 의식을 사로 잡았던 性理學은 朱子學, 宋學, 程朱學등 여러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공자 맹자 이래의 유학이 송나라대에 여러 사상가들에 의해 수정돼 나타났다.

우리도 잘 아는 四書라는 네 가지 책, 즉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은 바로 성리학이 가장 강조한 기본서였다.

서경덕은 이 가운데 <대학>을 1506년에 읽고 거기 나오는 “格物”을 해보려고 자기가 모르는 말을 벽에 써 놓고 밤과 낮으로 그것을 쳐다 보며 명상했다고도 전한다.

1506년이라면 그가 18살 때인데 그전에야 <대학>을 읽었다면 좀 늦은 것으로도 생각되는 대목이다. 아마 이 때 그가 이 책을 처음 읽었다는 뜻이기 보다는 “격물”에 그가 얼마나 열심이었나를 보여 주기 위한 일화일 것도 같다.

◇모든 자연은 數學的 질서를 갖는다고 보았다.

격물이란 말은 <대학>이 가르치는 8조목의 첫 조목으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한다』는 뜻이다. 거기 나오는 八條目은 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말하는데, 마지막 4조목은 누구에게나 잘 알려진 것이다. 요컨대 훌륭한 지도자는 격물 치지를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고 가르친 셈이다.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격물) 지식을 넓히는 것(치지)은 모든 지식인의 책임이다.

서경덕은 또 자연의 모두가 어떤 수학적 질서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런 전통은 옛날

중국의 전설시대에 黃河와 洛水에서 나왔다는 신비스런 거북과 龍馬의 등에 그려져 있었다는 河圖와 洛書를 근거로 하고 또 그것과 관련하여 발달했다는 周易을 바탕으로 전개되어 왔다. 마치 서양 고대 그리이스의 피타고라스가 우주의 근본을 수학적인 질서에서 찾으려했던 것처럼, 일부 성리학자들은 우주의 원리를 64卦를 기본으로 전개되는 易理와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을 근거로 나오는 曆理에서 찾아 보려했다.

◇天地가 개벽하는 전과정이 곧 1원

특히 宋의 철학자 邵雍(1011-1077)은 천체의 운동을 근거로 元, 會, 運, 世라는 4가지 시간의 단위를 생각했다. 서경덕의 자연철학도 바로 이런 생각을 받아서 펼쳐진 것이었다. 보통의 경우 1원은 1년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것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가 있다.

- 1원=12회 (1년=12달)
- 1회=30운 (1달=30일)
- 1운=12세 (1일=12시)

그러나 이 시간의 단위를 성리학에서는 우주의 생성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응용하여 서경덕은 천지가 개벽하는 전과정이 곧 1원이라 생각했다. 역시 소옹의 주장을 지지한 것이다. 이 경우 1세는 30년이 되어 다음과 같은 시간이 된다.

- 1세=30년
- 1운=12세=12×30년=360년
- 1회=30운=30×360년=10800년
- 1원=12회=12×10800년=129600년

즉, 1원이라는 천지창조의 시간은 12만9천6백년이 된다. 서경덕에 의하면 우주는 陰에서 陽이 싹트기 시작할 때 탄생했고, 그 우주에 인간이 생

자연 모두가 수학적 질서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는 河圖와 洛書를 근거로 하고 또 그것과 관련하여 발달했다는 周易을 바탕으로 하였다.

특히 황진이의 유혹에도 꺾겼었던 도학자로도 유명했다. 30년이나 벽을 보며 수도했다는 知足禪師를 파계시킨 황진이도 화담을 어쩔 수 없었다.

겨난 것은 양이 극성할 때였으며, 그후 양의 쇠퇴와 함께 음이 점점 흥하게 되면서 그와 함께 인류의 역사도 쇠퇴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주가 생긴지 약 3만년 뒤이고, 인간이 역사기로 접어 든 것은 다시 그로부터 약 3만년뒤의 일이다. 서경덕의 글에는 이런 종류의 숫자가 얼마든지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 어느 부분이 소옹같은 중국 사상을 따른 것이며, 또 어느 부분이 그의 독창적인 생각인지는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평생 학문에 몰두

화담 서경덕은 한 평생 학문을 연구했을 뿐 전혀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 1519년 120명의 후보자 가운데 으뜸으로 천거되었으나 관직을 끝끝내 사양했고, 1531년에는 어머니 명으로 생원시에 응시하여 합격했으나 역시 관직에 나가지는 않았다. 1544년 그의 덕망이 알려져 중종은 그에게 후릉 참봉의 자리를 주었지만 병을 핑계로 사양했다.

특히 그는 황진이 유혹에도 꺾겼었던 도학자로도 유명하다. 30년이나 벽을 보며 수도했다는 知足禪師를 파계시킨 황진이도 화담을 어쩔 수는 없었다는 전설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황진이는 박연 폭포, 서화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일러 “송도 삼절”이라 했다고도 한다. “개성의 3대 명물”이란 뜻이다.

그는 많은 글을 후세에 남기지는 않았다. 그의 문집<화담집>은 우리말로 번역돼 있는데 분량이 적다. 또 상당 부분이 시로 되어 있다. 그가 후세에 기리 이름을 남긴 것은 그의 사상이 李珣같은 대학자에 의해 계승되고, 또 李之菡같은 후배에 의해 이어졌던 때문이다.